

2016년 1월 22일

투자전략 Daily

• 이머징마켓 투자전략

중국 방문기 : 공격보다 수비가 낫다

• 이머징마켓 동향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중국 증시 급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바이오랜드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자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디스플레이, 농심, 한화테크윈, 현대글로벌비스, 현대백화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켈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R E I T s | 이수정 ☎ 3276-6252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4(목)	1/15(금)	1/18(월)	1/19(화)	1/20(수)	1/21(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78.45	1,889.64	1,878.45	1,889.64	1,845.45	1,840.53	
	등락폭	-0.42	11.19	-0.42	11.19	-44.19	-4.92	
	등락종목	상승(상한)	386(3)	305(1)	386(3)	305(1)	110(1)	364(3)
		하락(하한)	428(0)	506(0)	428(0)	506(0)	745(0)	464(0)
	ADR	83.70	78.39	83.70	78.39	70.41	69.04	
	이격도	10 일	98.67	99.47	98.67	99.47	97.56	97.63
		20 일	96.92	97.72	96.92	97.72	95.75	95.85
	투자심리	30	30	30	30	30	30	
	거래량 (백만 주)	277	330	277	335	407	433	
	거래대금 (십억 원)	4,120	4,442	4,120	4,536	5,340	4,792	
코스닥	코스닥지수	683.63	681.25	683.63	681.25	669.68	665.84	
	등락폭	5.20	-2.38	5.20	-2.38	-11.57	-3.84	
	등락종목	상승(상한)	386(2)	397(4)	386(2)	305(4)	110(3)	393(2)
		하락(하한)	428(0)	669(0)	428(0)	506(0)	745(0)	670(0)
	ADR	91.30	84.40	91.30	84.40	75.48	73.38	
	이격도	10 일	100.37	100.06	100.37	100.06	98.62	98.25
		20 일	101.50	100.98	101.50	100.98	99.24	98.70
	투자심리	50	40	50	40	30	30	
	거래량 (백만 주)	542	599	542	605	753	578	
	거래대금 (십억 원)	3,528	3,784	3,528	3,830	4,502	3,31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30.9	1,107.6	982.8	305.8	136.2	234.1	94.8	12.3	199.526	44.8
	매도	2,659.0	1,405.1	671.9	179.0	93.9	116.8	51.1	14.5	216.7	30.1
	순매수	-28.1	-297.5	310.9	126.9	42.3	117.3	43.7	-2.2	-17.1	14.7
	1월 누계	1,804.7	-2,725.2	818.0	-733.5	723.3	1,089.2	-116.6	20.4	-164.8	102.5
	16년 누계	1,804.7	-2,725.2	818.0	-733.5	723.3	1,089.2	-116.6	20.4	-164.8	102.5
	코스닥	매수	2,924.8	208.1	141.7	42.1	17.5	37.9	10.2	3.0	31.0
매도		2,898.4	204.4	168.8	52.4	16.2	40.1	12.6	3.9	43.6	22.1
순매수		26.4	3.7	-27.1	-10.4	1.3	-2.2	-2.4	-0.8	-12.6	-3.0
1월 누계		205.3	119.1	-219.8	-98.3	15.7	28.2	-51.2	-10.1	-104.2	-104.6
16년 누계		205.3	119.1	-219.8	-98.3	15.7	28.2	-51.2	-10.1	-104.2	-104.6

중국 방문기: 공격보다 수비가 낫다

2016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9.89배
12MF PBR	0.85배
Yield Gap	7.9%P

- ▶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전망 유지
- ▶ 미국 연준의 우호적 발언, 양화에 대한 정책기대 및 통화완화 지속은 단기 반등의 조건
- ▶ 단, 중기적인 불안요인 여전, 실적 기대가 뒷받침되는 신성장주와 정책테마주에 주목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전망 유지

■ 중국 현지 분위기: 보수적인 컨센서스가 우위

지난 1월 18일~19일 이틀간 상해 금융기관을 방문해 최근 중국 증시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 경기와 증시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했다. 구체적으로 1)경기의 하강 압력 지속, 2)통화완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연간으로 2차례의 금리 인하와 6차례의 기준율 인하 예상, 3) 증시는 3월 전인대를 앞두고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이 있을 것이나 중기적으로 불안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보수적인 시황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올해 중국 경기에서 기대했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에 12.5 규획기간(2011~2015년) 대비 정책당국의 의지와 강도가 높아졌고 시장 기대감도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속도는 3월 전인대 이후에야 가시화 될 것이며,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개선까지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석탄 등 대규모 산업보다는 알루미늄의 구조조정 효과가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올해 연말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은 약 6.7~6.8위안/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연초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로 향후 위안화 절하 압력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부의 개입으로 현재 위안화 역내외 환율은 진정세를 보였으나 국내 경기 상황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등 요인에 따라 변동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또한 위안화 일일 변동폭이 현재의 2%에서 3%로 확대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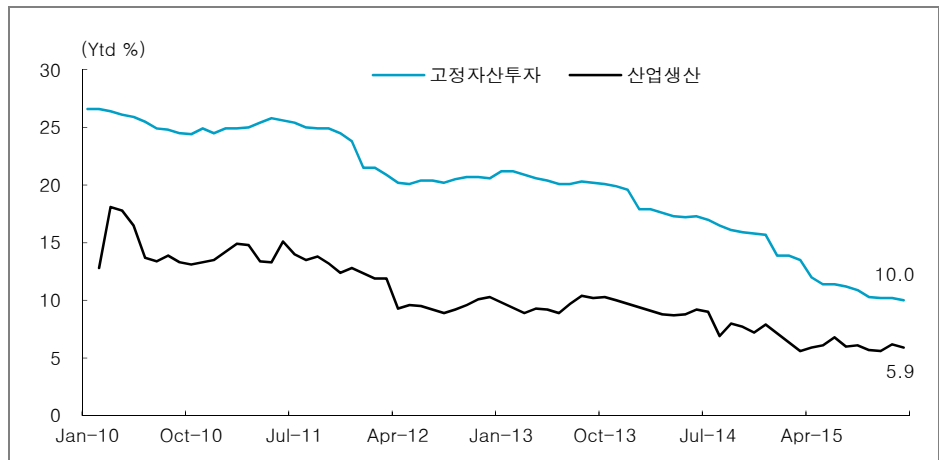
한편 현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시장 위험들로는 크게 1)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하강 압력 확대, 2) 경기 둔화로 인한 신용 리스크 확대, 3) 위안화 환율 불안정 지속, 4) 정부의 미숙한 정책대응 등 4가지로 정리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우려하는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이거나 혹은 중국 증시가 2011년 이후처럼 베어마켓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표 1> 증시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구분	내용
단기시황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 가능성 높으나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
중기시황	상반기 불확실성 증가, 시장환경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나을 듯
기회 요인	1) 통화완화 기조 지속, 2)13.5규획, 구조조정에 대한 개혁 기대감
리스크 요인	1) 신용 리스크 확대, 2) 환율불안, 3) 정부의 미숙한 정책 대응, 4)미국 금리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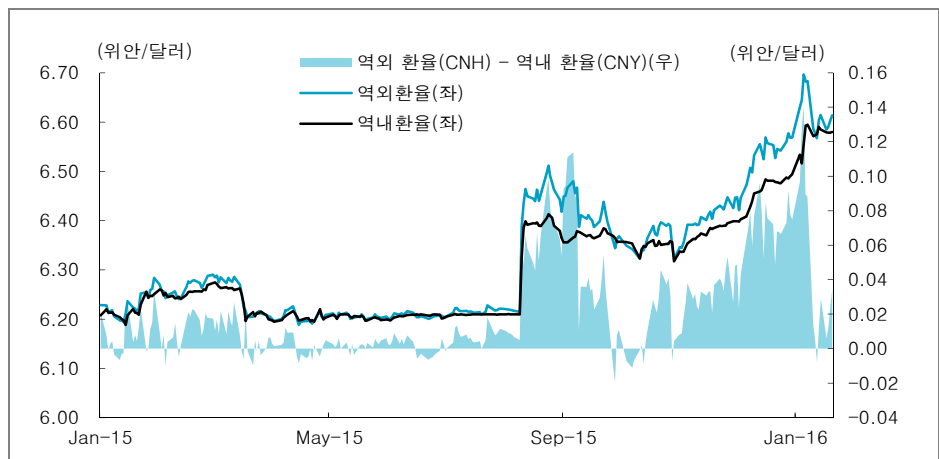
출처: 해통/신은만국/UBS 3대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산업생산 및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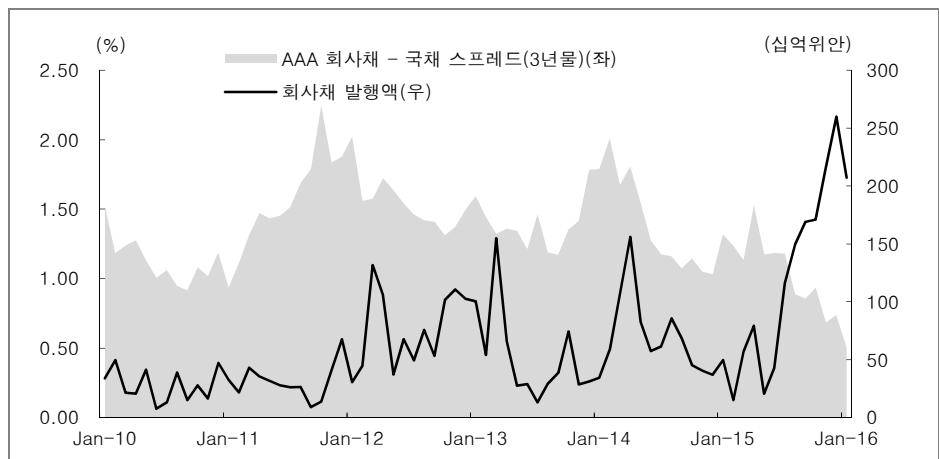
자료: 현지언론,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중국 역내외 위안화 환율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현지언론,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중국 회사채 발행 추이 및 Credit 스프레드 추이



자료: 현지언론, 한국투자증권

■ 취약한 투자심리,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중국 불안요인이 진정된 가운데 미국 FOMC의 결과에 주목 필요

올해 중국 증시 폭락으로부터 시작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는 3주간 지속됐다. 중국 증시는 대주주 자사주 매각 규제 발표, 위안화 환율 약세 진정, 서킷브레이커 제도의 잠정 중단 등 조치들로 기존 우려들이 해소되면서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홍콩달러가 다시 불안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취약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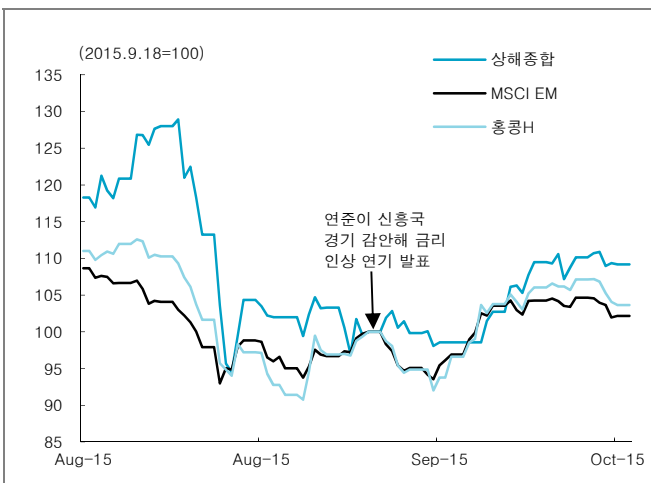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락 원인은 미국 실물 경기의 취약한 개선과 금리 인상 간의 불협화음에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절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역외 위안화 환율(CNH)도 연초의 6.7위안/달러에서 6.6위안/달러로 하락하면서 중국 발 노이즈는 진정세를 보였다.

따라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중앙은행의 방향선회가 시장의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주목해야 할 일정으로는 1월 27일(화)에 예정된 FOMC 회의와 2월 10일(수) 예정된 옐런 의회 연설이다. 작년 9월처럼 미국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세계경기 불안과 시장의 기대를 감안해’ 금리 인상을 연기하는 등 액션을 보이면 시장의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불안요인 진정되면 3월 양회를 앞둔 정책 기대감이 점차 부각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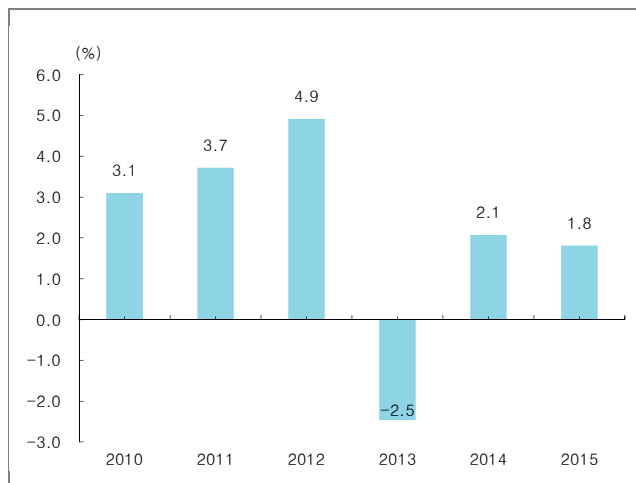
한편 대내적으로 중국은 3월 양회를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 부각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중국 증시는 매년 3월 전인대를 앞두고 정책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2010~2015년 과거 6년간 양회 직전 1개월 시장은 대부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는 13.5 기획기간의 중요한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작년 10월 18기5중전회를 앞두고 시장이 월간 10% 이상 반등했던 것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 작년 9월 미국 금리 연기에 따른 신흥국 증시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2010~2015년 3월 양회 직전 1개월 시장 등락추이



주: 매년 3월 3일 전인대 시작일을 기점으로 직전 1개월 주가 등락률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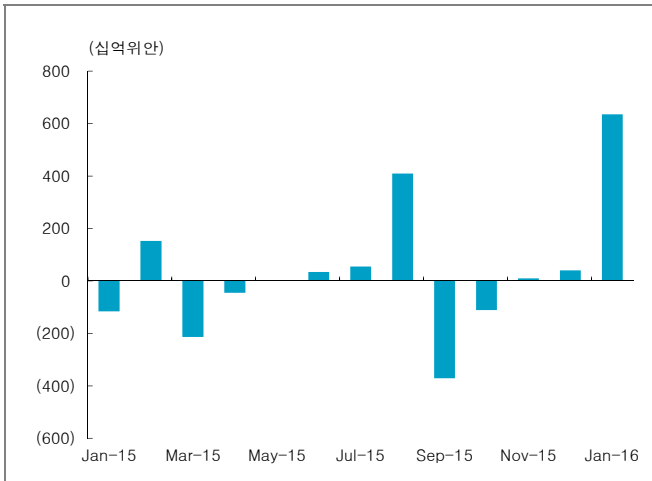
정부의 유동성 공급 지속, 증시의 투자매력도 상승

또한 정책당국의 통화정책은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인민은행은 이례적으로 역RP, SLO 등 시장공개조작 수단을 통해 1조위안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로써 시중에서 기대했던 기준율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국내의 단기 자금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필요 시 기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들은 취약한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일 것이다.

한편 중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통화완화 기조는 중국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주고 있다. 현재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8%, 5년물은 2.7%로 작년 연초의 3.6% 레벨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일드갭이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 투자에 비해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높음을 설명한다. 또한 21일 상해종합지수의 PBR도 1.6배로 2008년 금융위기의 최저치였던 2배보다 낮아 저가 매력도 역시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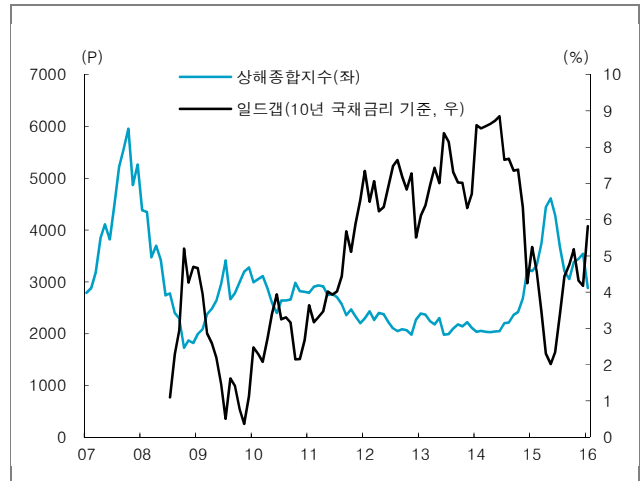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미국 FOMC에서 긍정적인 통화정책 시그널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고, 중국 정책당국의 부양 기조 지속 및 3월 양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된다면 시장은 다시 안정을 되찾으며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반등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추이*



주: 역RP를 통한 유동성 순공급량 기준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상해종합지수의 일드갭(Yield Gap)* 추이



주: YieldGap은 주식과 채권의 기대수익률 차이를 설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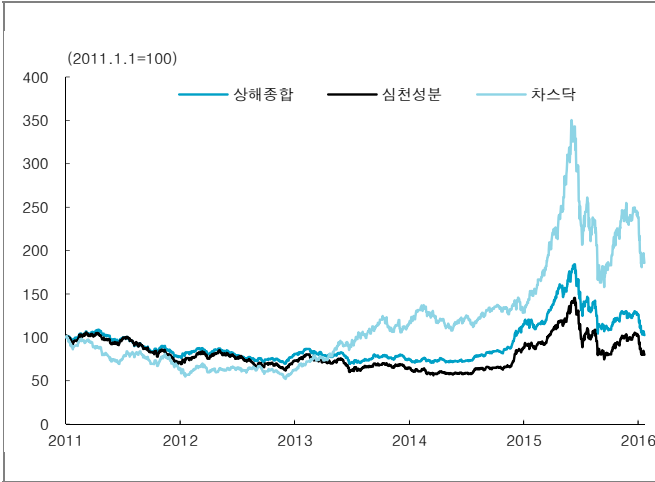
■ 신성장 종목 및 정책 테마주에 주목, 단 종목별 '육식 가리기' 필요

신성장, 정책 테마주 및 배당수익률 높은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유효

업종별로는 1) 신성장 산업, 2) 배당수익률이 높은 산업, 3) 13.5 계획의 정책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신성장 산업주들은 최근 급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부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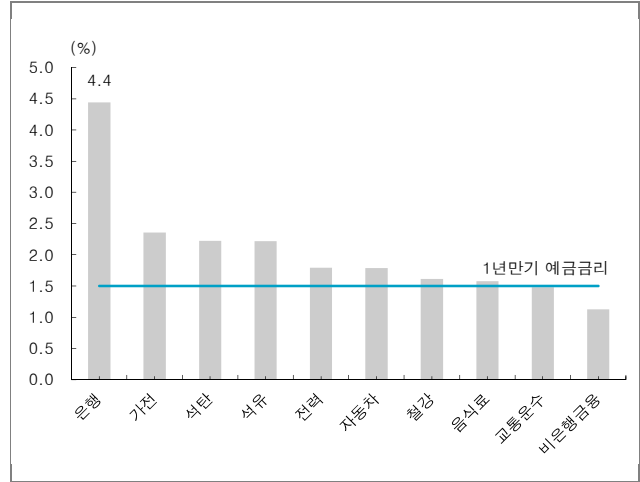
다만 연간으로 중국 경기 하강, 신용 리스크 확대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증시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러한 등락 과정에서 과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조정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올해는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들에 대한 '육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일 것이다.

[그림 8] 상해종합, 심천성분 및 차스닥지수 추이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9] 배당수익률 상위 Top 10 업종



주: 배당수익률은 2015년 말 기준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중국 증시 급락

- ▶ 상해종합지수 3.2% 급락, 유동성 공급에도 홍콩달러 약세전환에 경계심리 부각되며 하락
- ▶ 홍콩H지수 2.2% 급락, 오후 들어 홍콩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자금 이탈 확대
- ▶ 자카르타종합지수 0.3% 하락, 팜 오일 가격과 여타 이머징 증시 약세에 동조하며 하락
- ▶ VN지수 1.4% 하락, 해외 불안 지속과 기업 실적 부진에 매수심리 약화

상해종합지수는 3.2% 급락, 항공, 레저, 방위산업, 교통 운수설비 등 업종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3.2% 급락한 2,880p로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오전에 반등했다가 오후에 들어 낙폭을 확대해나갔다. 거래대금은 2,036억위안으로 직전일보다 소폭 줄었다. 중국 인민은행이 SLO, 역RP 등 방식을 통해 1조위안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오전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오후에 들어 홍콩달러가 또 다시 약세로 전환했던 가운데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로 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리가 부각됐다. 한편 기준을 인하 등과 같은 강력한 부양조치의 부재도 투심 악화에 일조했다. 모든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던 가운데 직전일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항공주가 6% 이상 급락하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그 외 레저, 방위산업, 교통운수설비, 포장, 가구, 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들의 낙폭도 크면서 차스닥 지수가 금일 4.2% 급락했다. 외국인들도 금일 2억위안을 매도하며 최근의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홍콩H지수 2.2% 급락, 자본재, 전기차, 증권, 부동산, 보험 등 업종 약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2.2% 급락한 7,836p로 마감하며 8,000선을 하회했다. 오전에는 직전일 급락에 따른 반등세를 출현했으나 오후에 들어 홍콩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시장도 하락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자금 회수에 나섰고, 이로 인해 홍콩달러의 불안세가 지속된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다. 자본재, 전기차, 증권, 부동산, 보험, 은행 등 대부분 업종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한편 강구통을 통한 본토자금의 유입은 지속됐다.

자카르타종합지수 0.3% 하락, 원자재, 소비재, 에너지, 금융 등의 업종 약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3% 하락한 4,413p로 마감했다. 루피아화 강세와 저가매수세 유입에 상승 출발한 증시는 오후 들어 팜 오일 가격 하락에 따른 식용유 제조 관련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제한됐다. 또한 여타 이머징 증시 하락에 투자심리가 위축돼 약세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원자재, 소비재, 에너지, 금융 등이 하락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1.4% 하락,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산
업소재 등 모든 업종 약세

VN지수는 1.4% 추가로 하락하며 522p로 마감했다. 이들 연속 약세를 보이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외 불안 지속과 일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개인들의 매수심리가 약화됐다. 대부분 업종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대형 부동산 업체 HAG는 이틀째 하한가까지 급락했다. 한편 저가 매입을 위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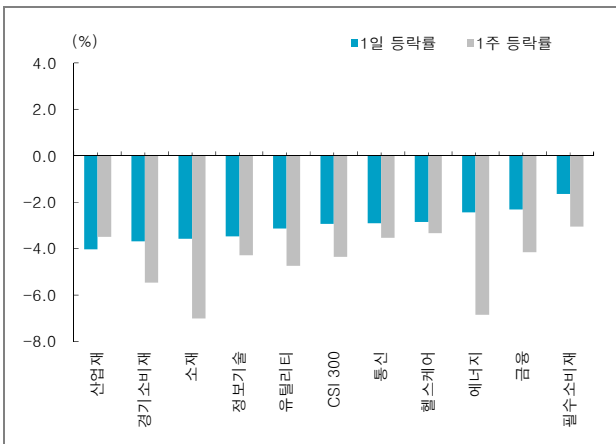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인민은행, 단기유동성조작을 통해 6일물 1,500억위안 유동성 공급(금리 2.35%→2.25%) 인민은행, 역RP 발행을 통해 4,000억위안 유동성 공급, 금일 순공급액은 2,400억위안 인민은행, 금주 SLO, MLF, 역RP 등 1조 1,400억위안 유동성 공급, 순공급액 8,450억위안
러시아	통계국, 1월 넷째주 CPI YTD 0.5%(직전치 0.3%)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14.25% 동결(컨센서스 14.75%, 직전치 14.25%)
베트남	중앙은행, 2016년에 은행권 부실대출 처리 강화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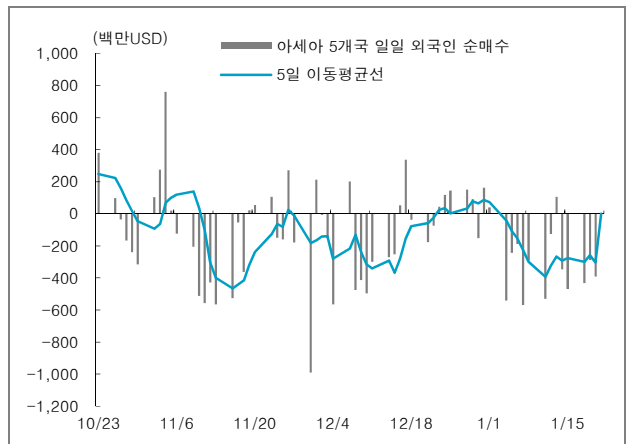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21(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880.48	-3.23	-4.23	-18.61	-18.61
홍콩 H	7,835.64	-2.24	-7.38	-18.89	-18.89
중국 차스닥	2,112.40	-4.18	-2.88	-22.17	-22.17
인도 SENSEX	23,984.19	-0.32	-3.18	-8.17	-8.17
인도네시아 JCI	4,414.13	-0.31	-2.19	-3.89	-3.89
태국 SET	1,251.31	0.19	-0.95	-2.85	-2.85
베트남 VN	521.88	-1.43	-5.63	-9.87	-9.87
MSCI 이머징마켓	692.76	-3.03	-4.20	-12.77	-12.77

주: 21일 오후 6시 5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중국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 미국증시는 글로벌 증시 급락과 함께 국제유가가 26달러선으로 내려 앉으며 에너지 업종이 시장 하락을 주도. 다우지수가 16,000P선 아래로 밀려나는 등 일제히 하락세를 보임.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 매도세에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 매수세가 맞서며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세로 마감. 코스닥은 기관이 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하락을 주도,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로 장중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오후들어 하락세로 돌아서며 사흘 연속 하락. 중국 인민은행이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증시가 3% 이상 급락하며 2,900P선 마저 이탈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됨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계열사 해태제과 상장 기대감에 크라운제과가 급등했으며, 지난해 국내 드론 판매량이 5배 증가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드론 브랜드 DJI의 국내 공식 파트너인 제이씨현시스템이 상한가를 기록.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퍼스텍이 강세를 보였으며, 벌크선 사업부 매각설에 현대상선이 상한가를 기록. 또한, 거래소가 주식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증권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장기계부문 매각 관련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던 두산그룹주는 회사측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임. 반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68.7% 감소하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포스코 ICT가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신약 개발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부광약품은 차익실현 매물로 나올 만에 급락세로 전환

종목/이슈	내 용
크라운제과(005740) ▶618,000(+7.29%)	해태제과 IPO 기대감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해태제과의 기업공개(IPO) 추진 기대감에 급등세 - 해태제과 상장으로 동사는 일부 지분을 구주 매출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만약 구주매출을 한다면 이에 따른 매각 이익 기대
퍼스텍(010820) ▶5,240(+9.28%)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 착수 소식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청이 200억달러 생산을 목표로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힘. 이에 한국형 헬기와 T-50 고등훈련기 개발 및 양산에 참여한 바 있는 동사의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 - 아울러, 지난해 국내 드론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무인항공기 시스템업체인 자회사 유콘시스템의 성장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증권주	주식 거래시간 연장 추진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거래소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 - 골든브릿지증권(001290, +6.70%), KTB투자증권(030210, +4.40%), 유안타증권(003470, +3.61%), 대신증권(003540, +1.98%), 동부증권(016610, +1.05%) 등 강세
두산그룹주	유동성 위기 우려가 완화되며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공장기계사업 매각이 무산됐다는 설이 확산되며 최근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으나, 매각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시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강세 - 두산인프라코어(042670, +11.44%), 두산중공업(034020, +4.84%), 두산엔진(082740, +4.36%), 두산(000150, +3.56%), 두산건설(011160, +2.60%)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농심(004370) ▶534,000(+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왕, 맛짬뽕 등 고가의 신제품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바이오랜드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바이오랜드 (052260)	26,500 (-4.2)	27,650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물 원료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화장품 이외의 제품군 다변화, SKC의 해외 판매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 확대, 식품과 의약품 등 ODM/OEM 생산을 통한 완제품시장 진출 등을 주목할 필요 - 중국 로컬 업체향 매출 가시화, 마스크팩 사업부 증설 및 성장, 최대주주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 유효
피에스텍 (002230)	5,740 (-19.0)	7,090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활성화에 따른 디지털 전력량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지속 - 스마트미터기 매출 비중 증가와 건설사로의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1천억원을 상회하는 순현금을 바탕으로 설비투자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성 강화 예상
나스미디어 (089600)	61,000 (+22.0)	50,000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IPTV, 디지털 사이니지 등 전방산업 성장에 따른 뉴미디어 광고 수요의 구조적 증가 추세 지속 -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한 동영상 디스플레이 광고 증가와 미디어렐 활용 증가로 뉴미디어 광고시장 내 침투율 상승에 따른 고성장세 지속 전망 - 모기업인 KT향 Captive 매출 증가로 이익 안정성 확대, 고수익성 매체 판매 확대로 이익률 개선 예상
대상 (001680)	37,000 (+13.5)	32,600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강화 등으로 장류 등 주력제품의 시장 점유율 개선으로 실적 회복 예상 - 중기적으로 조미료, 바이오, 라이신 사업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 유효 - 주요 연결 자회사의 정상화와 실적 안정화로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진도 (088790)	4,205 (-15.9)	5,000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며 모피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중국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진출을 통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메르스 여파로 3분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중국인 구매 증가와 성수기 효과로 4분기 실적 개선 예상
홍국에프엔비 (189980)	30,550 (-14.8)	35,850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농축액, 착즙주스 등 프리미엄 식음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카페프랜차이즈 확산과 함께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카페/외식 식부자재 관련 종합유통회사로 도약 기대 - 2013년 SPC그룹과 중국에 동반 진출한 가운데 중국 로컬 프랜차이즈사로의 공급 확대 등 중국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자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성전자 (005930)	1,131,000 (-10.2)	1,260,000 (12/30)	204,975	27,248	20,882	145,233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불안과 IT 수요 부진으로 2016년 1분기까지 실적 개선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경쟁력과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투자매력 제고 가능성 상존 - 지배구조 개선 기대와 배당금액 증가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 				
현대모비스 (012330)	240,000 (-2.6)	246,500 (12/30)	40,961	3,328	3,812	39,892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에는 핵심부품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익성을 견인할 전망. - 현대차그룹의 핵심부품 내재화와 친환경 부품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혜 예상 - AS부문의 고수익성과 안정성과 기술력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더존비즈온 (012510)	18,150 (-11.5)	20,500 (12/30)	166	39	31	1,057	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1만 중소/중견 기업과 9천여 개의 세무회계사무소를 핵심 고객으로 확보 -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어닝 모멘텀 본격화 예상 - 클라우드 유지 보수액은 기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대비 3배 이상 높아 향후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 				
삼영무역 (002810)	20,900 (-13.5)	24,150 (12/30)	231	4	27	1,703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근시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계열사인 케미그라스가 4개의 생산라인을 통해 연간 6천만장의 렌즈 생산능력을 보유 - 베트남 생산공장(Chemilens Vietnam)은 2016년부터 글로벌 1위 안경렌즈 업체인 프랑스 예실로의 아시아 시장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 지속적인 R&D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대 추세 지속 예상 				
BGF리테일 (027410)	206,500 (+20.4)	171,500 (12/30)	4,850	203	164	6,568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락 등 편의점 신선식품 확대가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점포당 매출액 증가와 점포 확대로 통한 수익성 개선 지속 예상 - 판매 채널의 편리성, 접근성을 활용한 PB브랜드의 지속적 확대와 모바일 채널과의 시너지를 통한 고성장세 지속 예상 				
롯데칠성 (005300)	2,327,000 (+4.9)	2,219,000 (12/30)	2,407	177	118	86,667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시장의 저도화와 다양화 추세를 주도하며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 맥주(Kloud)사업 성장과 향후 계열사 지분 및 서초동 부지 가치 현실화에 대한 기대 유효 - 음류와 주류시장의 성장과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가동률 유지로 패널가격 하락지속

■ 1월 LCD TV패널 가격 전월대비 4~9% 하락해 하락속도 둔화 나타나지 않아

iHS가 어제 발표한 1월 LCD패널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하락폭을 보여 패널수급이 여전히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V패널의 경우 32인치 3.6%, 48인치 9.2%, 55인치 6.1% 하락했다. 모니터패널의 경우 2~3%, 노트북패널은 1% 내외 하락해 전월과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다. 본격적인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패널수요가 약한 이유도 있지만 패널업체들이 과거와 달리 가동률 조정을 하고 있지 않아 큰 폭의 패널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4분기 대만패널업체 매출액 YoY 20~30% 감소

대만의 Innolux와 AUO의 지난 4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9%, 21% 감소했다. AUO의 경우 패널출하량 감소보다는 패널가격 하락이 매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인 반면 Innolux의 경우 중국패널업체에게 점유율을 빼앗기면서 10인치 이상 패널출하량이 전년동월대비 16% 하락한 것이 매출액 감소의 주요원인이 됐다. BOE를 포함한 중국패널 업체들이 공격적인 생산량 증가를 지속하고 있어 패널업체간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OLED장비주 모멘텀은 계속된다

지난 주 AP시스템이 장비수주 공시를 하면서 OLED장비주들이 큰 폭의 주가상승을 보였다. 최근 두 달 사이 종목별로 16~144%의 주가 상승을 보여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번 OLED투자사이클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 단기조정이 나타날 경우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을 추천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향 OLED설비투자를 먼저 시작했지만 LG디스플레이도 조만간 투자이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애플의 OLED 채택은 다른 스마트폰업체들의 OLED패널 채택으로 이어져 국내 패널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OLED TV패널의 경우도 이미 설비투자를 본격화한 LG디스플레이를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2016년 내에 설비투자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SUHD TV 이후 프리미엄 TV제품 라인업이 없어 2017년 새로운 TV제품 판매를 위해서라도 올해 설비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OLED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디스플레이 업종 '비중확대'의견 유지

LCD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OLED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LCD사업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패널업체들의 실적모멘텀은 약세를 지속하겠지만 OLED설비투자의 수혜가 가능한 장비업체들의 실적개선은 2016년부터 본격화되어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비아트론을 업종 top pick으로 추천하고 목표주가 29,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6년 추정EPS에 목표PER 18배를 적용했다. 2013년 OLED장비업체들의 평균PER은 최고 25배까지 높아졌다. 대형OLED패널 설비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사이클에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농심(004370)

매수(유지)
목표가: 650,000원(상향)
종가(1/20): 500,000원

빅 사이클의 초입일 뿐

■ 라면 ASP 높여 목표주가 650,000원으로 상향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는 2017년 EPS에 세계 주요 라면회사의 평균 PER을 적용해 기존 500,000원에서 650,000원으로 30%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라면의 고가화로 ASP 전망을 상향하며 높인다. 기존에는 라면 내수 ASP가 2016년과 2017년에 전년대비 각각 2.4%, 2.9%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으나, 이번에 이 전망치를 순서대로 9.0%, 7.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EPS는 기존 전망대비 각각 16.4%, 37.8% 높아졌다. 짜왕, 맛짬뽕 등 고가 신제품의 인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1,500원으로 신라면(소비자가격 780원) 대비 92%나 비싸지만 소비자의 관심사는 ‘가격이 비싸다’가 아닌 ‘맛이 있냐 없냐’이다. 1,500원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여전히 최저 경쟁 대용식대비 500원~1,000원 싸다. 라면은 정부 규제로 수년간 경쟁품대비 낮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가, 현재는 규제 완화와 소비 고급화로 ASP가 급격히 성장하는 구간을 맞이했다. 우리는 현재 1,500원짜리 봉지면의 라면 내수 내 물량 비중을 2016년 13.2%, 2017년 15.4%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이 더 상승하거나, 신라면과 같은 기존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우리의 실적 전망치는 다시 상향될 것이다.

■ 4분기 영업이익 125% 증가 예상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7%, 125.4% 증가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6.0% 상회할 전망이다. 실적 호전 이유는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1,500원짜리 고가 신제품의 인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계절적 비수기에 돌입한 짜왕의 매출액은 전분기 350억원에서 2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11월말 출시된 맛짬뽕이 150억원 가량 매출액에 기여해 1,500원짜리 봉지면의 합산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50억원 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제품과 관련된 마케팅비 부담은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나, 신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기존 제품 대비 3~4%p 높아 초기부터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16년, 대체재와의 가격 괴리 급격히 메우는 구간

라면보다 싼 대용식은 없다. 서울 시내 떡볶이가격도 보통 3천원을 넘는 시대이다. 따라서 1,500원짜리 라면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짜왕은 350억원, 43백만식 정도 팔려, 라면 내수 물량의 8%를 차지했다. 우리의 2016년 1,500원 신제품의 물량 비중 13.2%는 상반기부터 달성 가능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품들이 ASP도 기존 제품대비 50~70% 비쌌 뿐 아니라, 원가 증가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원가 구조는 동사와 경쟁사가 크게 다를 전망이다. 동사는 우수한 맛을 구현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보유해, 신제품으로 인한 추가 원가 부담이 작다. 201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중국 백산수 관련 적자를 100억원 감안해서 전년대비 17.0%, 37.5% 증가할 것이다. 라면 내수 매출액이 1조 2,664억원에서 1조 4,617억원으로 15.4% 성장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이익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 ASP 상승 외 점유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동사가 최근 히트제품에서 잊혀지듯 소비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입으로 신제품 포지셔닝을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라면 내수 매출액이 고급화 진전으로 10.9% 성장하고 백산수 관련 손실이 줄어들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1.9%, 41.9% 증가할 전망이다. 대체재와의 가격 괴리를 향후 2년간 한꺼번에 메우면서 급격한 이익 증가를 향유할 것이다. 또한 2011년 이후 가격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2년내 신라면 등 기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기존 제품의 ASP가 1% 올라가면 2016년 EPS는 현재 전망치에서 약 5.4% 증가한다. 과거와 유사한 7% 정도의 가격 인상이면 EPS는 이론적으로는 40% 상향될 수 있다. 섹터 내 top pick으로 계속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2,087	93	88	15,286	NM	176	16.4	5.9	1.0	6.0	1.6
2014A	2,042	74	65	11,241	(26.5)	155	22.5	6.9	1.0	4.3	1.6
2015F	2,208	123	124	21,399	90.4	208	20.5	10.4	1.6	7.8	0.9
2016F	2,584	170	148	25,532	19.3	256	19.6	9.5	1.7	8.7	0.8
2017F	2,892	241	203	35,075	37.4	327	14.3	7.0	1.5	11.0	0.8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화테크윈(012450)

매수(유지)

목표가: 42,000원(유지)

종가(1/20): 31,000원

우려는 곧 해소된다

■ 4분기 실적, 빅베스 있어도 괜찮다

한화테크윈(이하 테크윈)의 2015년 4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6,658억원, 영업손실 31억원이다. 전년대비 매출액은 비슷하고 영업손실 폭은 줄어드는(4Q14 -234억원, CCTV공장 중국 이전으로 비용 발생) 것이다. 추정치에는 약 300억원의 노사합의 관련 비용(기본급 인상 및 타결 보너스 1인당 6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4분기 실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규모 부실 반영(빅베스) 여부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 첫 해에 새로운 경영진이 부실 자산이 있을 경우 일시에 비용처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4분기 빅베스가 발생해도 대부분 현금 유출이 적은 회계평가상 비용일 것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빅베스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돼 긍정적 관점의 접근을 추천한다. 2016년 예상 영업이익은 672억원으로 전년도 적자 480억원에서 흑자전환 할 것이다. 일회성비용들(2분기 인수 위료금 약 900억원 등)이 제거되고 특수(지상방산), 파워시스템(항공엔진) 사업부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 한화그룹의 인수 발표 후 1년, 펀더멘털 좋아졌지만 주가는 낮아졌다

한화그룹은 테크윈 인수를 2014년 11월 26일에 발표했다. 지난 1년간 테크윈은 방산/항공엔진 중심의 회사로 변모하고있다. 파워시스템(엔진부품사업) 사업부는 2014년 12월 GE와의 장기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총 3건의 대규모 life time 계약(RSP포함)을 맺었고, 특수사업부(방산)는 2001년 터키 수출 이후 처음으로 K9 자주포 수출(폴란드)에 성공했다.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31,000원으로 오히려 인수 발표 전일 종가 33,900원 보다 낮아졌다. 편입 후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발생 우려와, SS(CCTV), IMS(침마운터)사업부 실적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분기 실적발표를 기점으로 일회성 비용 우려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또한, 올해 SS와 IMS사업부 합산 영업이익이 거의 없다(45억원) 추정해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

■ 우려 떨쳐내고 본격 성장하는 2016년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42,000원(SOTP valuation으로 산출)을 유지한다. 지난 한달 간 한화종합화학과 한국항공우주(KAI) 지분을 매각해 약 7,000억원(세후 약 5,500억원 추정)의 현금을 확보했다. 올해 예상되는 엔진부품 RSP 참여금을 고려해도 2016년에는 순현금 구조로 유동성에 여유가 생긴다. 향후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방산 및 항공엔진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두산DST 인수 예비입찰 참여로 회사의 강력한 방산 부문 투자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안정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다양한 긍정적인 event가 기대되는 2016년이다.

■ 두산DST 인수전 참여, 방산/항공엔진 업체로의 사업구조 집중

테크윈은 두산DST 인수전(100% 지분 인수)에 참여 중이다. 한화종합화학 및 KAI 지분 매각 후 처음으로 참여한 방산업체 인수 건이다. 두산DST 예비입찰에는 테크윈, LIG, PE 4곳 등 총 6곳이 참여했다. 두산DST는 기동무기, 유도무기, 발사대 등을 생산하고 한화그룹 방산업체들(한화, 한화탈레스, 한화테크윈), LIG넥스원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00% 순수 방산 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30mm 차륜형대공포 및 사격통제(EOTS) 체계 개발 업체(전자광학추적장치는 한화탈레스, LIG넥스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 정부는 예산 1.4조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0여문의 신형 차륜형대공포를 공군과 해병대에 공급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월 인수 스킴리스트 선정 후 2월 예비실사를 거쳐 3월에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2,630	96	132	2,494	1.1	183	21.8	18.0	1.7	8.1	0.9
2014A	2,616	8	(119)	(2,237)	NM	88	NM	19.2	0.8	(7.1)	-
2015F	2,523	(48)	(9)	(178)	NM	28	NM	72.2	1.0	(0.5)	-
2016F	2,607	67	55	1,037	NM	163	29.9	9.5	0.8	2.8	-
2017F	2,772	94	81	1,519	46.4	197	20.4	7.5	0.8	4.0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월 2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글로비스(086280)

매수(유지)
목표가: 250,000원(하향)
종가(1/20): 185,000원

4Q15 Preview: 시장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실적 나올 듯

15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3조 9,214억원, 1,850억원으로 추정한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9%, 영업이익은 12.0% 늘어나는 것이다(컨센서스 영업이익은 1,813억원). 현대/기아차의 15년 4분기 전세계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8.0% 늘어나 현대글로비스의 국내 및 해외 물류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 비계열사 매출 늘어나며 자동차부문 성장 둔화 우려 상쇄

증시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성장이 전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매출의 70%가 계열사에서 나오지만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속도에 비해 현대글로비스는 수 년째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3자 물류(비계열사 물류) 시장에서 매년 성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올해는 제3자 물류보다 그룹사에서 나오는 구조적인 성장이 더 부각

현대/기아차는 올해 자동차 판매량 목표치를 813만대로 잡았으며 이는 15년 실적대비 1.4% 늘어나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액은 6.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올해부터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수출 담당비율이 50%로 전년대비 10%p 높아져 약 800억원의 매출이 더해지고, 이로 인해 늘어난 자동차운반선을 채우기 위해 비계열사의 자동차 운반 관련 매출이 수 백억원 더 늘어날 수 있는데다, 2분기 중 가동될 기아차 멕시코공장에서 올해 약 1,000억원의 CKD 매출이 더해지는 등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고성장 기대감은 사라진 지 오래, 안정적인 성장으로 투자포인트가 바뀌고 있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28만원에서 25만원으로 10.7% 내린다. 이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막연한 지배구조 이슈로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시각은 거의 사라졌다. 대신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꾸준히 주가도 오를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원/달러 환율, 유가 등 경제변수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이익이 늘어나는 그림을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형주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상대적 매력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목표주가는 SOTP valuation으로 구한 205,549원과 과거 3년 평균 PER 18.6배를 적용해 구한 289,754원을 평균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SOTP valuation과 DCF 모델을 사용했다. SOTP valuation을 적용해 구한 적정주가는 과거와 유사하나, PER을 적용해 구한 목표주가가 DCF 모델로 구한 적정가치보다 낮아 목표주가가 10.7% 하향조정됐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12,861	637	481	12,834	(3.3)	717	18.0	13.0	3.7	22.6	0.6
2014A	13,922	645	536	14,300	11.4	744	20.4	15.9	3.9	21.0	0.7
2015F	14,870	697	416	11,099	(22.4)	825	17.4	10.0	2.3	14.1	1.0
2016F	15,838	768	584	15,586	40.4	915	11.9	8.6	1.9	17.2	1.1
2017F	16,685	851	652	17,382	11.5	1,014	10.6	7.5	1.6	16.5	1.1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월 2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백화점(069960)

매수(유지)

목표가: 210,000원(유지)

종가(1/20): 120,000원

4Q15 Preview: 업황과 다른 양호한 실적

■ 4Q15F 영업이익 1,387억원(+13.9% YoY)

현대백화점의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넘어설 전망이다. 백화점 업황은 부진하지만, 신규점 효과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1,387억원을 예상한다. 4분기 총매출은 1조 4,865억원(+16.1% YoY)으로 추정된다. 기존점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하고 판교알파돔시티 등 신규점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의 기존점매출은 업황 대비 상대우위수준으로 판단된다. 10월부터 시작된 판촉활동 확대에 의해 백화점 3사의 10월, 11월 매출은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12월은 따뜻한 날씨 등으로 의류판매가 부진하면서 전년동월대비 기존점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비경기 개선보다 현대백화점의 개별요인에 집중할 시점

백화점 업황 대비 현대백화점의 상대우위실적은 2015년 하반기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침체 속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이 지속되었고, 4분기 또한 업황과는 달리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5년 주요 신규점인 김포프리미엄아웃렛과 판교알파돔시티의 매출호조가 주요 원인이며, 기존점의 상대우위실적도 가세하고 있다. 신규점 효과는 2015년보다 오히려 2016년에 더 크게 나타난다. 연간 매출에 온전히 기여할 뿐 아니라,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이익증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신규점은 송도프리미엄아웃렛, 케레스타 아웃렛, 가든파이버아웃렛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들 점포 또한 빠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소비경기가 부진하더라도, 현대백화점의 손익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10,000원 유지

백화점 업황 부진 속에서도 상대우위실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증가시기에 진입한다. 2016년은 판교알파돔시티, 김포프리미엄아웃렛 등 현대백화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규점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인 반면, 주가는 PER밴드의 역사적 저점에 머물러 있다. 유통업종 내 valuation 매력은 높을 뿐 아니라 실적모멘텀 또한 갖추고 있다. 현대백화점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주가는 12MF PER 9.9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12MF PER 17.3배에 해당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1,534	393	299	12,975	(7.1)	504	12.4	9.0	1.2	10.4	0.4
2014A	1,552	364	268	11,652	(10.2)	478	10.6	7.7	0.9	8.6	0.6
2015F	1,662	371	263	11,512	(1.2)	502	11.0	8.3	0.8	7.8	0.6
2016F	1,966	437	305	13,378	16.2	596	9.0	7.2	0.7	8.4	0.6
2017F	2,096	492	341	14,961	11.8	671	8.0	6.4	0.7	8.6	0.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4(목)	1/15(금)	1/18(월)	1/19(화)	1/20(수)	1/21(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00.01	1,878.87	1,878.45	1,889.64	1,845.45	1,840.53	
	등락폭	-16.27	-21.14	-0.42	11.19	-44.19	-4.92	
	등락종목	상승(상한)	198(1)	274(1)	386(3)	305(1)	110(1)	364(3)
		하락(하한)	627(0)	548(0)	428(0)	506(0)	745(0)	464(0)
	ADR	93.95	89.01	83.70	78.39	70.41	69.04	
	이격도	10 일	99.17	98.49	98.67	99.47	97.56	97.63
		20 일	97.66	96.71	96.92	97.72	95.75	95.85
	투자심리	30	30	30	30	30	30	
	거래량 (백만 주)	311	312	277	335	407	433	
	거래대금 (십억 원)	4,387	4,579	4,120	4,536	5,340	4,792	
코스닥	코스닥지수	683.19	678.43	683.63	681.25	669.68	665.84	
	등락폭	-2.84	-4.76	5.20	-2.38	-11.57	-3.84	
	등락종목	상승(상한)	198(4)	274(3)	386(2)	305(4)	110(3)	393(2)
		하락(하한)	627(0)	548(0)	428(0)	506(0)	745(0)	670(0)
	ADR	104.93	97.82	91.30	84.40	75.48	73.38	
	이격도	10 일	100.33	99.69	100.37	100.06	98.62	98.25
		20 일	102.00	101.00	101.50	100.98	99.24	98.70
	투자심리	50	40	50	40	30	30	
	거래량 (백만 주)	561	596	542	605	753	578	
	거래대금 (십억 원)	3,792	4,170	3,528	3,830	4,502	3,316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30.9	1,107.6	982.8	305.8	136.2	234.1	94.8	12.3	199.526	44.8
	매도	2,659.0	1,405.1	671.9	179.0	93.9	116.8	51.1	14.5	216.7	30.1
	순매수	-28.1	-297.5	310.9	126.9	42.3	117.3	43.7	-2.2	-17.1	14.7
	1월 누계	1,804.7	-2,725.2	818.0	-733.5	723.3	1,089.2	-116.6	20.4	-164.8	102.5
	16년 누계	1,804.7	-2,725.2	818.0	-733.5	723.3	1,089.2	-116.6	20.4	-164.8	102.5
코스닥	매수	2,924.8	208.1	141.7	42.1	17.5	37.9	10.2	3.0	31.0	19.1
	매도	2,898.4	204.4	168.8	52.4	16.2	40.1	12.6	3.9	43.6	22.1
	순매수	26.4	3.7	-27.1	-10.4	1.3	-2.2	-2.4	-0.8	-12.6	-3.0
	1월 누계	205.3	119.1	-219.8	-98.3	15.7	28.2	-51.2	-10.1	-104.2	-104.6
	16년 누계	205.3	119.1	-219.8	-98.3	15.7	28.2	-51.2	-10.1	-104.2	-104.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9,660	기계	-1,098	서비스업	16,713	보험	-11,311
전기,전자	21,372	의약품	-611	제조업	16,300	금융업	-4,964
화학	15,704	종이,목재	-586	화학	3,774	철강및금속	-4,179
KODEX 레버리지	25,089	KODEX 200	-34,241	NAVER	14,409	LG생활건강	-5,268
삼성전자	14,761	부광약품	-2,516	삼성물산	9,847	기아차	-4,336
NAVER	11,149	삼성생명	-1,965	현대모비스	4,511	삼성화재	-3,418
한국전력	5,268	LG디스플레이	-1,713	삼성에스디에스	3,767	삼성생명	-3,057
SK이노베이션	4,974	KT&G	-1,615	한미사이언스	3,191	SK	-2,93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123	서비스업	-2,128	서비스업	11,778	통신업	-4,691
음식료품	1,001	제조업	-1,024	보험	10,034	건설업	-1,887
통신업	822	건설업	-749	화학	6,603	비금속광물	-1,500
KODEX 레버리지	3,846	SK이노베이션	-1,779	삼성화재	10,601	LG유플러스	-3,518
KODEX 200	1,283	GS건설	-1,207	SK이노베이션	5,450	한전KPS	-2,579
농심	976	삼성물산	-1,041	하나금융지주	4,642	TIGER 200	-2,344
두산	949	KODEX 인버스	-1,040	NAVER	4,218	현대백화점	-2,160
KT	874	에스원	-935	KODEX 200	4,200	현대차우	-1,866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83,554	의약품	-5,016	건설업	4,971	서비스업	-58,728
전기,전자	71,002	비금속광물	-1,948	비금속광물	1,383	전기,전자	-56,298
화학	46,145	유통업	-701	의료정밀	1,311	의약품	-33,684
삼성전자	58,876	KODEX 200	-21,070	KODEX 200	20,733	삼성전자	-63,733
NAVER	37,372	KODEX 레버리지	-8,930	SK이노베이션	6,101	NAVER	-47,883
LG화학	24,942	삼성생명	-7,173	아모레퍼시픽	5,779	LG생활건강	-21,785
삼성물산	13,459	KODEX 인버스	-5,748	롯데케미칼	5,236	호텔신라	-19,191
현대모비스	13,358	부광약품	-5,042	한미사이언스	4,623	한국전력	-19,182
한국전력	12,840	현대백화점	-3,762	LG디스플레이	4,340	부광약품	-16,197
SK이노베이션	12,490	현대해상	-3,378	LG이노텍	3,852	삼성화재	-13,319
삼성화재	10,098	녹십자	-2,765	두산중공업	3,489	기아차	-9,610
한미사이언스	9,097	한솔케미칼	-2,661	현대산업	3,405	LG화학	-9,115
TIGER 200	8,403	LG유플러스	-2,654	KB금융	3,254	한미약품	-9,00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소프트웨어	3,189	제약	-2,258
연구,개발	2,885	기계,장비	-1,362
디지털컨텐츠	2,790	인터넷	-1,254
골프존유원홀딩스	4,162	셀트리온	-2,042
컴투스	3,241	카카오	-1,287
바이로메드	2,399	AP시스템	-1,172
OCI머티리얼즈	981	에스에프에이	-1,142
바이넥스	946	로만손	-573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313	오락,문화	-616
제약	240	기계,장비	-435
의료,정밀기기	198	운송장비,부품	-318
엘오티베콤	341	파라다이스	-841
쇼박스	224	원익IPS	-350
컴투스	217	한글과컴퓨터	-281
루트로닉	198	툽텍	-244
한양이엔지	180	오리엔탈정공	-212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12,117	제약	-13,564
연구,개발	4,959	오락,문화	-3,989
전문기술	2,497	IT부품	-2,871
컴투스	13,933	셀트리온	-10,355
바이로메드	5,109	파라다이스	-3,938
OCI머티리얼즈	2,515	카카오	-2,171
에프티이앤이	1,888	이오테크닉스	-1,729
CJ E&M	1,864	AP시스템	-1,556
에스엠	1,781	크루셜텍	-1,303
NICE평가정보	1,754	휴온스	-1,244
골프존유원홀딩스	1,639	KG이니시스	-1,222
인트론바이오	1,516	씨티씨바이오	-1,187
동아엘텍	1,329	메디톡스	-1,182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4,309	제약	-2,339
전문기술	2,431	의료,정밀기기	-798
방송서비스	666	소프트웨어	-704
컴투스	4,254	셀트리온	-1,251
에프티이앤이	1,389	휴온스	-930
CJ E&M	1,354	KG이니시스	-825
아나패스	446	루트로닉	-693
씨젠	403	파라다이스	-514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9,047	제약	-22,027
오락,문화	5,369	인터넷	-2,878
IT부품	3,050	출판,매체복제	-2,633
컴투스	7,488	셀트리온	-17,416
파트론	2,613	메디톡스	-4,543
쇼박스	2,606	골프존유원홀딩스	-4,285
바이로메드	2,565	원익IPS	-4,212
파라다이스	2,432	오스템임플란트	-3,050
OCI머티리얼즈	1,919	카카오	-2,846
동국제약	1,579	코오롱생명과학	-1,393
주성엔지니어링	1,146	안랩	-1,337
루멘스	1,008	휴온스	-1,277
뷰릭스	974	에스엠	-1,205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12,117	제약	-13,564
연구,개발	4,959	오락,문화	-3,989
전문기술	2,497	IT부품	-2,871
컴투스	13,933	셀트리온	-10,355
바이로메드	5,109	파라다이스	-3,938
OCI머티리얼즈	2,515	카카오	-2,171
에프티이앤이	1,888	이오테크닉스	-1,729
CJ E&M	1,864	AP시스템	-1,556
에스엠	1,781	크루셜텍	-1,303
NICE평가정보	1,754	휴온스	-1,244
골프존유원홀딩스	1,639	KG이니시스	-1,222
인트론바이오	1,516	씨티씨바이오	-1,187
동아엘텍	1,329	메디톡스	-1,182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정밀화학	15 일	대덕전자	24 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4 일	한화케미칼	8 일
삼성화재	14 일	모토닉	7 일
한온시스템	14 일	삼성엔지니어링	5 일
현대미포조선	13 일	코오롱	4 일
현대모비스	13 일	한일시멘트	4 일
삼성물산	13 일	남양유업	4 일
NAVER	11 일	삼영전자	4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베스트투자증권	54 일	인터파크홀딩스	8 일
CJ오쇼핑	17 일	태광	5 일
평화정공	12 일	파라다이스	5 일
덕산하이메탈	10 일	크레듀	5 일
한국토지신탁	9 일	모두투어	5 일
GS홈쇼핑	4 일	OCI머티리얼즈	4 일
에스엠	3 일	루멘스	3 일
CJ E&M	3 일	현진소재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물산	95,377	한화케미칼	36,527
NAVER	84,748	동부화재	10,847
삼성전자	79,384	LG생활건강	9,867
현대모비스	47,604	SK이노베이션	8,875
한미사이언스	44,126	엔씨소프트	8,641
삼성생명	41,739	현대해상	7,737
삼성화재	32,714	한전KPS	6,741
한국전력	32,027	GKL	6,141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12,438	셀트리온	27,793
CJ E&M	10,508	오스템임플란트	16,996
서울옥션	7,203	카카오	11,719
원익IPS	6,102	바텍	6,782
GS홈쇼핑	5,269	동서	6,528
바이넥스	4,351	파라다이스	5,939
바텍	3,290	셀바이오택	5,568
한국토지신탁	3,014	안랩	5,499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KOSPI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건설업		10,913		4,971		15,884	
SK이노베이션		12,490		6,101		18,590	
한미사이언스		9,097		4,623		13,721	
롯데케미칼		4,909		5,236		10,144	
S-Oil		8,195		1,459		9,653	
한화케미칼		6,572		420		6,992	
현대산업		3,116		3,405		6,521	
KB금융		2,046		3,254		5,300	
대림산업		2,838		1,560		4,398	
크라운제과		4,162		213		4,375	
현대건설		3,854		471		4,325	

종	KOSDAQ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12,117		9,047		21,164	
연구,개발		4,959		2,049		7,009	
전문기술		2,497		860		3,357	
컴투스		13,933		7,488		21,421	
바이로메드		5,109		2,565		7,674	
OCI머티리얼즈		2,515		1,919		4,434	
쇼박스		371		2,606		2,977	
파트론		26		2,613		2,639	
에프티이앤이		1,888		708		2,596	
인트론바이오		1,516		904		2,419	
동아엘텍		1,329		539		1,868	
주성엔지니어링		363		1,146		1,509	
바텍		324		949		1,27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KPX케미칼	21 일	TIGER 200	20 일
두산중공업	16 일	삼성생명	19 일
한국가스공사	16 일	NH투자증권	17 일
유수홀딩스	14 일	대우조선해양	17 일
쌍용차	14 일	삼성물산	17 일
현대상선	14 일	대덕GDS	14 일
KODEX China H	14 일	현대차	14 일
OCI	11 일	현대모비스	14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톱텍	30 일	KTH	14 일
모두투어	10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14 일
포스코켐텍	9 일	평화정공	8 일
SK컴즈	9 일	KCC건설	6 일
파라다이스	7 일	케이디씨	6 일
동진세미켐	6 일	EG	6 일
포스코 ICT	6 일	다날	6 일
크루셜텍	6 일	GS홈쇼핑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304,411	삼성전자	-96,322
한화케미칼	-29,922	호텔신라	-95,533
삼성SDI	-28,174	삼성생명	-85,879
LG생활건강	-20,470	NAVER	-85,450
부광약품	-16,975	현대차	-72,335
TIGER 원유선물(H)	-15,538	기아차	-71,627
하나금융지주	-15,152	삼성화재	-57,116
동부화재	-9,320	POSCO	-48,174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66,518	원익IPS	-12,273
카카오	-24,656	AP시스템	-8,004
파라다이스	-9,931	서울반도체	-6,030
이오테크닉스	-7,294	GS홈쇼핑	-3,281
오스템임플란트	-5,865	삼천리자전거	-3,083
에스에프에이	-5,676	에스엠	-2,877
바른전자	-5,404	대화계약	-2,111
로엔	-4,885	에이치엘비	-1,94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약품		-5,016		-33,684
유통업		-701		-17,723
운수창고		-439		-5,725
LG생활건강		-278		-21,785
부광약품		-5,042		-16,197
삼성생명		-7,173		-4,429
KODEX 인버스		-5,748		-252
두산인프라코어		-2,177		-2,642
오리온		-1,608		-1,769
CJ대한통운		-1,178		-1,954
현대상선		-1,012		-1,983
대웅제약		-383		-2,241
유한양행		-713		-1,816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13,564		-22,027
인터넷		-2,194		-2,878
소프트웨어		-877		-2,607
셀트리온		-10,355		-17,416
메디투스		-1,182		-4,543
원익IPS		-890		-4,212
카카오		-2,171		-2,846
오스템임플란트		-1,099		-3,050
휴온스		-1,244		-1,277
코오롱생명과학		-144		-1,393
씨티씨바이오		-1,187		-296
안랩		-124		-1,337
크루셜텍		-1,303		-8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4	27,915	
KODEX 200	1,081	24,652	
LG전자	417	22,172	
POSCO	92	14,774	
호텔신라	184	11,934	
아모레퍼시픽	29	11,053	
삼성생명	83	8,480	
S-Oil	92	7,12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69	19,913	
바이로메드	30	5,909	
카카오	33	3,758	
씨젠	57	2,430	
AP시스템	116	2,142	
이오테크닉스	17	2,092	
원익IPS	163	1,916	
파트론	131	1,436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085	3,510,386
현대중공업	15,296	1,242,044
호텔신라	17,449	1,135,925
한미약품	1,540	1,121,414
현대차	5,978	816,057
아모레퍼시픽	1,745	671,141
NAVER	1,009	670,048
롯데케미칼	2,661	643,99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3,316	2,713,988
카카오	6,863	769,368
CJ E&M	682	551,342
바이로메드	1,301	246,759
위메이드	1,202	246,144
컴투스	1,427	184,932
코미팜	3,447	142,347
파라다이스	9,750	137,961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주 수	순 감	금액
기계	10,565	금융업	-877
운수장비	8,330	섬유,의복	-769
전기,전자	6,920	건설업	-620
두산중공업	5,649	BNK금융지주	-2,560
현대상선	4,538	한솔홀딩스	-1,074
삼성중공업	4,174	쌍방울	-860
두산인프라코어	4,027	현대건설	-843
한화케미칼	3,972	현대증권	-841
현대중공업	2,701	현대차	-796
SK하이닉스	2,693	대우조선해양	-726
KODEX 200	2,414	한진해운	-623
SK증권	2,413	기아차	-427
호텔신라	2,229	KT	-38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주 수	순 감	금액
제약	3,673	오락,문화	-784
도매	1,315	기타제조	-94
반도체	1,019	기타서비스	-87
셀트리온	2,932	파트론	-679
한진피앤씨	755	루멘스	-492
인터파크홀딩스	592	파라다이스	-407
원익IPS	528	골프존유원홀딩스	-312
SDN	468	차바이오텍	-296
컴투스	296	서울반도체	-271
캠시스	268	쇼박스	-257
크루셜텍	220	KH바텍	-173
인바디	214	이상네트웍스	-159
동서	203	주성엔지니어링	-154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5(금)	1/18(월)	1/19(화)	1/20(수)	1/21(목)
외국인	-2,725.2	-2,725.2	-1,367.6	-216.8	-346.3	-279.2	-227.8	-297.5
기관계	818.0	818.0	654.4	-68.0	318.6	177.2	-84.2	310.9
(투신)	1,089.2	1,089.2	421.4	23.3	101.7	112.0	67.1	117.3
(연기금)	-25.1	-25.1	28.2	18.9	12.2	-3.3	-20.1	20.5
(은행)	20.4	20.4	8.8	-1.9	2.0	3.7	7.2	-2.2
(보험)	723.3	723.3	271.0	57.5	77.3	41.5	52.4	42.3
개인	1,804.7	1,804.7	624.0	251.7	12.1	87.9	300.4	-28.1
기타	102.5	102.5	89.3	33.1	15.6	14.2	11.7	14.7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1/14(목)	1/15(금)	1/18(월)	1/19(화)	1/20(수)
KOSPI	1,997.1	2,011.3	1,915.6	1,900.0	1,878.9	1,878.5	1,889.6	1,845.5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0,514.2	21,424.7	21,592.0	21,836.1	21,220.1
(증감액)	334.1	-3,802.5	1,630.7	173.9	910.5	167.3	244.1	-616.0
(회전율)	26.7	29.9	34.0	39.9	40.8	35.4	38.3	46.4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316.9	657.6	496.6	496.1	-602.8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119.6	3,118.2	3,132.4	3,118.3	3,127.3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509.6	3,531.6	3,540.7	3,540.8	3,541.7
미수금	1,241.0	929.0	1,176.0	180.4	129.9	134.8	187.1	170.2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3(수)	1/14(목)	1/15(금)	1/18(월)	1/19(화)
전체 주식형	81,071	417	417	174	7	8	148	128
(ex. ETF)		661	661	25	17	29	64	157
국내 주식형	63,179	359	359	168	2	15	146	104
(ex. ETF)		605	605	19	12	36	64	134
해외 주식형	17,892	58	58	6	5	-6	1	24
(ex. ETF)		55	55	6	5	-6	0	24
주식 혼합형	8,151	-9	-9	3	-5	11	5	14
채권 혼합형	30,642	79	79	-4	-15	-2	7	30
채권형	86,402	1,296	1,296	-30	-43	14	257	412
MMF	108,068	14,642	14,642	1,243	648	171	1,460	85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5(금)	1/18(월)	1/19(화)	1/20(수)	1/21(목)
한 국	-2,257	-2,257	-1,128	-178	-286	-231	-187	-245
대 만	-2,427	-2,427	-756	-215	-84	-153	-234	-69
인 도	-1,229	-1,229	-542	-153	-276	-113	-	-
인도네시아	-273	-273	-149	-59	-38	-24	-20	-8
태국	-300	-300	-61	-30	-59	26	2	-
남아공	-664	-664	-414	-164	-165	8	-93	-
필리핀	-83	-83	-38	5	-10	-11	-3	-20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5년말	1/15(금)	1/18(월)	1/19(화)	1/20(수)	1/21(목)
회사채 (AA-)	2.11	2.11	2.10	2.10	2.08	2.07
회사채 (BBB-)	8.06	8.05	8.04	8.04	8.02	8.02
국고채 (3년)	1.66	1.65	1.64	1.64	1.61	1.61
국고채 (5년)	1.81	1.79	1.79	1.80	1.76	1.75
국고채 (10년)	2.08	2.02	2.03	2.06	2.00	1.99
미 국채 (10년)	2.27	2.03	2.03	2.05	1.98	-
일 국채 (10년)	0.27	0.22	0.21	0.22	0.21	-
원/달러	1,172.50	1,213.40	1,210.90	1,205.90	1,214.00	1,213.70
원/100엔	972.63	1,035.77	1,031.78	1,040.72	1,040.81	10,039.13
엔/달러	120.55	117.15	117.36	116.65	116.64	116.80
달러/유로	1.09	1.09	1.08	1.09	1.09	1.08
DDR3 1Gb (1333MHz)	1.00	0.99	0.99	0.99	0.99	-
DDR3 2Gb (1333MHz)	1.13	1.10	1.10	1.10	1.09	-
NAND Flash 16Gb (MLC)	1.46	1.46	1.46	1.46	1.46	-
CRB 지수	176.81	159.93	159.93	159.48	156.31	-
LME 지수	2,217.9	2,054.5	2,074.3	2,085.1	2,065.9	-
BDI	478	373	369	363	358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29.42	29.42	28.46	26.55	-
금 (달러/온스)	1,060.00	1,093.75	1,089.20	1,086.25	1,101.7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1	12	13	14	15
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9일) (1.6%, 1.6%, 1.5%)	美> Lockhart 연준 이사 연설 日> 11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1,143.5, 895.0, 1,458.4)	中> 12월 수출 YoY (-1.4%, -8.0%, -6.8%) 韓> 12월 실업률 (3.4%, 3.5%, 3.4%) 유럽> 11월 산업생산 MoM (-0.7%, -0.3%, 0.6%)	韓> 옵션만기일 금통위 금리 결정 (1.50%, 1.50%, 1.50%) 美> 베이지북 발간 Bullard 연준이사 연설 日> 11월 기계수주 MoM (-14.4%, -7.3%, 10.7%)	美> Dudley 연준이사 연설 12월 소매판매 추정 MoM (-0.1%, -0.1%, 0.2%) 12월 광공업생산 MoM (-0.4%, -0.2%, -0.6%) 中> 12월 M2 통화공급 YoY (13.3%, 13.6%, 13.7%) 12월 신규대출(십억 위안) (597.8, 700.0, 708.9)
18	19	20	21	22
日> 11월 산업생산 MoM (-0.9%, n/a, -1.0%)	中> 4분기 GDP YoY (6.9%, 6.9%, 6.9%) 12월 광공업생산 YoY (5.9%, 6.0%, 6.2%) 12월 소매판매 YoY (11.1%, 11.3%, 11.2%) 독일> 12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0.3%, 0.3%, 0.3%) ZEW 서베이 예상 (10.2, 8.0, 16.1) 실적발표> 美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IBM,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간스탠리, 델타 에어라인스	美> 12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1%, 0.0%, 0.0%) 12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149, 1,200, 1,173) 실적발표> 美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05%, 0.05%) 실적발표> 韓 KT&G 美 버라이즌, 스타벅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트래블러스	美> 12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20, 4.76) 유럽> 1월 마켓 제조업 PMI (n/a, 53.0, 53.2) 독일> 1월 마켓 제조업 PMI (n/a, 53.0, 53.2) 실적발표> 美 GE
25	26	27	28	29
韓> 12월 광공업생산 YoY(~29일) 日> 12월 무역수지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포르투갈> 1차 대선(24일)	韓> 4분기 GDP YoY	美> FOMC 통화정책회의 12월 신규주택매매	日> BOJ 통화정책회의	美> 4분기 GDP 日>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